

제418회 국회  
(정기회)

#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 2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 2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 2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2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2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2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2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2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2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3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3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3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3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3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3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3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27일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및 주둔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 등을 고려하고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자와 순직자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려는 것으로 기 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공제회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 연계 제도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가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자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며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를 마련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저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수품은 국가재산인데 외국에 대여·양여하는 경우는 국방위에다가 나중에, 이것은 사후입니다,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그런 것과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군수품은 외국에 대여·양여하는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에는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장관님께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특사단 어저께 왔었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김병주 위원 어제 장관님 접견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접견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요구한 것은 뭐니까, 아마 지원 희망 무기 리스트 같은 것을 제공했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리스트는 받았습니까, 거기서 원하는 리스트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참관단이나 또는 파병 병력을 보내 달라는 것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조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무기 지원은 살상무기 지원은 실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야기할 수가 있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한국으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10여 명의 모니터링단을 이미 파견을 했다라고 나오던데 여기 10여 명 중에 군인도 포함돼 있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현역 군인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여기 국정원 10여 명 모니터링단 인원에 대한 임무는 뭡니까? 포로 신문 이런 건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지금 국정원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우크라이나에 벌써 들어가 있다고 나오던데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건 국정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러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최후통첩과 비슷한 메시지를 냈어요.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지만 일단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모든 전쟁 자체가 불법적인 침략전쟁으로 유엔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국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다는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러우 전쟁이 종전되면 관계 회복이 필요할 텐데 어려워서 국익 차원에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조기에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외신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지금 현재 추측일 뿐이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병대 채 상병과 관련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2월 6일 날 이·취임식 한다고 하던데 언제 전역합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취임식과 동시에 아마 전역이 될 겁니다.

○**김병주 위원** 임성근 사단장은 이번에 전역합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정상적으로 보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병주 위원** 지난번에 경찰 광수대가 태릉골프장의 신상자료를 가져갔다라고 했고 실제 저희가 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국방부로부터, 신상자료를 가지고 갔다. 이건 민간사찰인데 왜 갖고 갔다고 합니까?

○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경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병주 위원** 그것은 경호가……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태릉에 골프 치러 가실 예정인 모양이지요, 경호 차원이면?

○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가신다 안 가신다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 **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위원** 그러면 끝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범계 위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하고 호주 호위함 탈락을 연결해서 석종건 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왜 탈락했어요?

○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호주에서 발표한 것은 호주가 작전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과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항속거리를 언론에서 주요 이유로 평가하던데 그것이 소위 작전운용 환경에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받은 주요 이유입니까?

○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런 항속거리나 그다음에 함정에 헬기가 운용되는데 그런 충분한 정비 여건 그다음에 아무래도 적은 인원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용 인원 면에서의 차이, 그다음에 앞으로 배가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면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래요. 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선행절차를 간소화해서 결국은 경쟁력을 높이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경쟁력과 관련해서 호주 호위함 선정에 현중과 한화가 떨어지고 나서 소 잊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호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것은 강대식 간사님이 활약을 하신 겁니까?

○ **강대식 위원** 아닙니다.

○ **박범계 위원** 진작에 좀 활약을……

그런데 일괄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요?

○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박범계 위원 그 평가 시스템과 관련해서 현황과 계획을 물으니까 ‘호주 호위암 SEA3000 사업 수출 허가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유관기업과 협업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했는데, 올라간 외국의 팀들은 다 원팀으로 돼 있던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노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원팀으로 갔을 때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위원 낫겠지요. 그렇게 원팀으로 가서 경쟁력이 더 제고된다는 그런 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심사항목이 배제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들이 심사, 수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 이상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박범계 위원 아니, 적법을 묻는 게 아니라 적정했느냐라는, 즉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방위사업이라는 게 반관반민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개입을 해서 적정성 평가, 소위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원팀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런 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노력이 부족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박범계 위원 성찰이 좀 있으셔야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교훈 삼아서 원팀 구성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박범계 위원 고민해야 되겠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추진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

○박범계 위원 청장님, 제가 국방위에 와 가지고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대목은 ‘경쟁이냐 독점이냐’,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전체적으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쟁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쟁도 사실은 효율성이나 국익 앞에서는 때로는 양보할 필요가 있고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박범계 위원 국내는 경쟁, 해외는 원팀 이런 게 좋겠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그 원팀으로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하셨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의미심장하고 진전된 발언인데 그걸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지금 제도적으로도 일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더 완비 할……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좀 더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현재 있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박범계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답입니다. 뭐가 더 보완이 돼야 되겠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사실 통상적으로 민간영역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관반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발언신청하셨지요?

○**추미애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는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 불법 위치추적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법률안으로 보다 명확하게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제정법입니다. 반대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 내부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또 민주적 통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바라고요.

현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대통령의 구룡대 골프장 이용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 번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날짜가 8월 8일과 9일, 지난 여름 대통령 휴가기간인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안보휴가를 보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지 않지요? 안보휴가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안보휴가 맞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라고,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이를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했습니다.

8월 8일, 구룡대 골프장을 아마 새벽에는 다른 곳에 개방을 해 놓고 새벽 시간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이 이용한 것 같은데요. 이날은 두 달에 한 번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일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연락해서 어거지로 문을 열게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 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 경호처장 아니셨나요?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대통령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제가 국방위원이기도 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이기도 합니다—지난 19일 날 국회운영위에 불출석하셨어요. 평계가 뭐냐 하면 대통령 순방 중에 대통령실을 지켜야 된다였습니다. 안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휘해야 된다 그 얘기겠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주말인 11월 16일에 웰링턴CC에 나타나서 여당의 김장겸 의원—전 MBC 사장이시지요—또 조선일보 모 간부와 대통령 순방기간 중에 골프를 치셨어요.

나라 기강이 무너져도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휴가기간 중에 골프 친 것을 안보휴가였다고 대통령실이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방금 장관께 제가 자료를 들고 확인을 시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추시고 또 대통령 순방 중에 국회에 예산은 던져 놓고 나오지 않은 채로 불출석하고 본인은 그 주말에 순방기간 중인데 대통령실을 지키지 않고 골프를 치고. 누가 나라를 운영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와 치시는지 얼마나 자주 치는지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시의 일행 출입현황, 특히 민간인은 별도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군 골프장 CCTV 녹화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 골프장 사용 비용 총액이 얼마인지 비용은 누가 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특사단 무기 지원 요청은 절대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 일행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마도 무기 지원을 요청했겠지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미 천궁이나 이런 우리 무기를 직접 사겠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 한국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방공시스템과 155mm 포탄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기 수출은 절대 안 됩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일이 될 겁니다. 장관께서 철저하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휴가 중에 대통령께서 골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정드릴 말씀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성일종** 예,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께서 8월 8일, 9일 날 구룡대에서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에 대통령께서 휴가 가실 때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차피 내가 휴가 가는 지역이 군용 지역이고 한데 장병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시고 또 장병들하고 족구도 하시고 또 함께 라운딩도 하시고 또 안보태세 점검 차원에서 U3 병커도 다 둘러보시고 이러면서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달라 그래서 반영된 거거든요.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업자들하고 골프 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영관급 실무자다 그래서 영관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것은 내 평생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장병들을 위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박범계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역대 어느 대통령들께서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에게 함께 라운딩을 하시고 함께 격려 식사하시고 이런 대통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위원** 이 자리는 장관의 충성심을 발언하는,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현안을 질의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저는 충성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 시간, 장소, 상황에 안 맞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셔야지요.

아니,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어떻게 통수권자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간업자들도 아니고 부하들하고 같이 정말 고생하는 부사관, 영관장교들, 실무자들하고 운동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시느냐?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추미애 위원** 염불과 갯밥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었나요?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장관님은 당시 경호실장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일정에 대해서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 부사관도 있고 영관급도 있었다고 그러니 그것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안보휴가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 거짓말이다, 당연히 국회의원

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각도대로 얘기하신 거고요. 장관님은 대통령님 모시고 그 휴가 일정에서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시고 또 족구도 하시고 여러 일정을.....

○**추미애 위원** 아니, 그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골프 얘기한 겁니다, 농구·족구가 아니라.

○**위원장 성일종** 그중에 골프도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질의 전에, 거의 매주 노무현 대통령이 골프 치셨다는데 그 근거 대세요. 제가 5년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근거 대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금성 격려 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무슨 현금 격려를 말씀하십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전방에 갔을 때 사단장이나 현금 격려 안 합니까? 지난번에 내가 질문을 했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누가 현금 격려를 합니까?

○**박선원 위원** 장관이 현금 격려를 하느냐 했을 때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장관은 현금 격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없앴습니다.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장기복무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고 그것은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차관이 와서 육군의 의견이다하면서 미래, 향후 전력구조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저희들 인력 문제 때문에 육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애매하게 미래, 향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타임테이블을 내세요. 그 설계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육사 졸업생조차도 임관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입학생도 합격이 돼도 입학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3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공항까지 몇 km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글쎄요.

○**박선원 위원** 모르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박선원 위원**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몇 km인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 지형·지리 감각이 없어요? 인터넷에 키이우 공항까지 7300km,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740km입니다. 약 10배 떨어져 있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방장관 면전에서 국방차관이 북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740km 떨어진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왜 북한 청년 걱정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존재와 미래 자체를 걱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서울로 끌어들여 오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말씀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7300km 밖에 있는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올 생각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당연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마이클 월츠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전쟁의 가속화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한국도 여기에 관여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했다. 이 전쟁의 테이블에 양측 당사자를 끌어와서 어떻게 전쟁을 종결시킬까가 초미의 관심사다’ 11월 24일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분명하게 이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이 관여하려, 개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 하고 러시아는 아까 김병주 위원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와 마치 일전불사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젤렌스키는 지난 5월에 대통령 임기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 끝나면 이 사람은 자동으로 축출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무슨 전쟁물자 지원 합의를 하고 방산업체 수출을 알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정부대표단이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만났었지요, 우크라이나. 그때 요구한 게 무기 요청이었어요. 무기 요청을 위해서 특사단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특사단 와서 무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무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사단이 오기 전에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방공망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와서 천궁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이 수출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젤렌스키 정권의 상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즉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우리가 행해야 될 점은 전쟁 종결이지 전쟁 지원이 아닙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엔에서도 불법 침략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것은 말할 필요 없고요, 반복적으로.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리고 그 불법침략에 우리 북한이 파병을 한 것입니다. 총알받이 파병을 한 것입니다.

○**박선원 위원** 우리 북한이 아니지요. 북한이지요, 그냥.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명분 없는 불법침략에 북한이 러시아에 패병함으로써 확전의 우려와 확전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우려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책임 있는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국가로서 함께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밭을 뺀다면 이것은 결국 나중에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고립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왜 염두에 두지 못하십니까?

○**박선원 위원** 아닙니다. 또 추가 질문해야겠네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물론 러시아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해서 이런 불법침략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1분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쓰십시오.

○**박선원 위원**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에스컬레이션 래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이 전쟁의 가속화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국제사회에서 무기 지원하겠다는 곳은 영국·프랑스 두 나라밖에 없어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말 쓰지 마시고. 지금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전쟁 종식과 경제에서의 평화, 협력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국제사회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미국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몇몇 국가의 무기 지원은 이미 전쟁 종결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단지 그것은 고기를 분사하는 미트그라인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지난 이를 동안 법안 심사하는 데 실무자를 포함해서 차관님까지 많이 수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이지요. 소련이 6·25 전쟁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북한을 사주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기호 위원** 스탈린이 침략계획까지 만들어 줬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한기호 위원** 그리고 중공이 여기에 같이 움직여서 대한민국이 현재 휴전선이 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는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북진했다가 현재 휴전선에

오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유엔군이 편성돼서 유엔군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는 군사력이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야 위원님들도 바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 하는 판별 기준 자체가 침략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북한은 당시에도 소련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뺏어가고 국토를 유린하고 모든 재산을 쟁취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용현 거의 군사동맹에 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에서 용병성 파병까지 해서 총알받이로 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전 세계 어떤 전쟁하고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확전일로에 있다 보니까, 확전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확전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해서 지금 총알받이로 쓰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 비판하는 것 한 번을 못 봤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무도 침략자에 대해서……

○박선원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김병주 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매번 하고 있는데.

○한기호 위원 발언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끼어들고 그래요?

○박선원 위원 왜 집어서 이야기해요, 민주당 위원을? 지금도 비판하고 있어요.

○한기호 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김병주 위원 매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했잖아요.

○박선원 위원 9시 20분에 기자회견 하고 있어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정말 그러지 마세요. 혼자서 국회의원 해요? 함부로 그렇게……

○박선원 위원 아니, 왜 남을 거명하세요?

○한기호 위원 아니, 나중에 발언하라 이거예요. 왜 중간에 끼어들고 그래요? 참, 어떻게 그렇게……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좀 계시고요.

한기호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 반응을 유발시키지 마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이, 박선원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참 못됐네.

○김병주 위원 아니,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박선원 위원 아이고, 그래요 참 잘됐네요.

- 한기호 위원 그따구로 얘기하지 마세요.
- 박선원 위원 그따위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 임종득 위원 심하네, 정말.
- 박선원 위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한기호 위원 손가락질하지마! 얻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 박선원 위원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 안규백 위원 지금 뭐 하는 겁니다, 서로가.
- 한기호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발언하는데.
- 박선원 위원 왜 남의 위원들을 거명……
- 한기호 위원 발언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지.
-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지요. 하시라니까요, 다음에 발언권을 받아서. 왜 발언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참 나, 원……
- 위원장 성일종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때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가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어떤 언론들은 보도가 됐는데 확인된 건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 한기호 위원 확인된 것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군과 혼합 편성해서 합니까, 독립된 부대로 합니까? 그것도 알 수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용현 현재 우리 정보 판단에 의하면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한기호 위원 혼합해서?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 한기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언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용병성 파병이다, 북한군이 자국의 군복을 입지 않고 또 러시아군의 복장을 입고 그리고 신분증도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참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용병성이라고 봐야 돼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도 이런 경우는 용병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인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이렇게 개죽음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3사 출신 장기복무에 대해서, 양성되는 후배 장교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ROTC가 지금 장기복무하는 비율이 3.5 대 1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얼마로 바뀌냐면 5.9 대 1로 바뀝니다. 그러면 3사관학교를 장기로 해 주면 이것에 의해서 ROTC는 장기복무하는 자체가 2배 가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영향이 지금 ROTC 지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가 돼야지 따로 어느 출신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결정된 겁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질의하신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관련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좀 전에 장관님께서도 북한군이 독립 편제가 아닌 러시아군하고 혼성 편성 형태로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구성이 부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러시아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이런 형태의 혼성 편성을 해서 참전하고 있다는 첨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독립 편제가 아닌 혼성 편성으로 참전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일단은 그게 러시아군의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자기 나라 소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 소대를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알받이 용병 이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게 KN-23 같은 미사일에 이어서 240mm 방사포 그다음에 170mm 장사정포도 지금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최근에 추가로 더 러시아에 대해 제공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도 러시아군이 운용하고 있지 않은 무기 체계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유용원 위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중의, 주요 무기체계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까지 러시아에 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인적으로 또 물적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께서는 전에 이른바 모니터링단, 참관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보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지

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참관단은 파병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 파병은 지휘 체계를 가진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관단은 민간 전문가로서 비무장으로 소수 인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개입을 한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유용원 위원** 저도 방송 등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군이 드론전이라든지 전자 전이라든지 이런 것의 심각한 실태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라도 참관단은 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군 요원을 포함한 참관단 파견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면 조금 늦출 가능성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사실은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유용원 위원** 예, 그리고 방어용 무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른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께서 계룡대라든지 이런 데서 운동을 하신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주로 군수뇌부, 장관이나 총장 이런 수뇌부랑 하셨지 부사관급하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거의 처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가 사실은 제기된 지가 좀 됐는데 진작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주 위원** 저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이 저희들에 대한 신상발언.....

○**위원장 성일종** 아니, 저기 저.....

○**김병주 위원** 아니, 신상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사회는 제가 보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신상발언.

○**위원장 성일종** 아니, 사회는 제가 보니까 김병주 위원님, 저한테 좀 맡겨 주세요. 다 드릴게요.

○**김병주 위원** 아니, 신상발언 먼저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게 드릴 테니 저한테 좀 맡기시라고요.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언 달라고 손 들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진행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언제 기회 빼는 것 봤어요? 조금만 계셔 보세요. 부승찬 위원님 하시고 안규백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 골프 치신 거지 일과 중에 골프 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의 휴가는 또 휴일은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또 안규백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까지 하신 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짧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9월 25일 날 발언하신 내용 중에, 골프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10년 전에 친 것은 알고 있다. 과거에 10년 전에 친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골프를 치셨대요. 그래서 상임위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안 쳤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쳤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9월 25일 날 국방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8월 8일 날 9일 날,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일관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0년 전에 친 것은 알고 있다. 현 대통령은 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더니 또 8월 8일 날 9일 날 쳤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것은 좀 잘못되셨다, 그래서 명확히 사실관계 확인해서 전체회의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기 지원이나 참관단이 됐건 파병이 됐건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것은 여야가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국가 이익 관점에서 여가 보는 시각과 야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 됐건 파병, 참관단이 됐건 결정할 때 이런 요인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지요.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이 한반도 전장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북러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 그리고 첨단기술 이전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한국인 2세들이 이 사람들의 안전의 위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식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하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민들이 테러를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일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만 안전과 생명이 소중하냐? 그러면 외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의 안전은 어떻게 신경 쓸 것인가에 대한 고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국제관계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국제정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무기 지원이라든지 파병이 됐건 참관단이 됐건 저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것 같고요. 언어적 사용에 불과한 것 같고, 참관단이 간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냥 ‘참관단이니까

괜찮아'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요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도 결정 요인에 넣으셔 갖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 군이 러시아에 무관으로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무관 말씀하십니까?

○안규백 위원 예. 무관 1명에 무관보 육해공군, 지금 4명이 나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대사관 3층에서 근무하더라고요. 한 층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게 아니라 러시아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지금 수교를 맺고 있잖아요.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게 7300km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와 700km 떨어진 러시아의 관계 또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다영역에서의 그런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지요.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 김정은과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정부 주요 직위자들하고 행정부 주요 직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 중에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도 과거의 동맹국까지 손을 비틀면서 적대적인 국가인 나라와도 손을 잡고 자기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이익을 다 챙기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안규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분담금 문제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했던 것이라고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과 우리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이것을 복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지금 호주 호위함이 독일과 일본한테, 우리가 탈락됐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안규백 위원 탈락된 이유가 박범계 위원님이 여쭈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호주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준 것은 그들이 요구

하는 작전운용 환경.....

○**안규백 위원**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독일과 일본은 호주하고 G2G의 관계로 접근을 했고 우리는 G2B로 접근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적거리, 배 총톤수 이 문제는 우리가 정부 쪽에서 같이 G2G로 했으면 우리도 정보를 얻지요. 그러나 기업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G2B는? 그런 점에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한화하고 HD의 갈등에 의해서 했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정부의 역할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캐나다 문제도 G2G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기업이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력 면에서 정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한화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KDDX 문제도 방위사업청이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좌충우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것은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 문제에서 탈락된 게 아닙니다.

장관님, 3사 문제는 말이지요. 3사는 육사와 함께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대를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ROTC와 다릅니다. ROTC는 기본적인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장교가 된 것이고 기본적인 자세, 링에 올라갈 때 자세가 주먹을 쥐고 올라간 사람하고 주먹을 약간 내리고 올라간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세가? 3사는 육사와 같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무 문제를 근원적으로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통령 골프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장병들하고 쳤던 소령들하고 쳤던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30대도 골프를 칩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난마처럼 얹혀 있는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골프 치는 게 맞냐 이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대통령이 골프 쳤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외교 문제가 난마처럼 얹힌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겁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저는 1분 더 안 주나요?

○**위원장 성일종** 드릴까요?

○**안규백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1분 더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GP 철수 문제,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고도의 정무적 외교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세상에는 맥락 없는 사실 없고 사실 없는 맥락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문제를 보니까 요새 또 대수장에서, 물론 장관이 한 행위는 아닙니다마는 대수장에서

정경두, 정의용, 이기현, 서주석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에서는 검찰에다 수사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문제인 정권에서 박근혜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을 받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한령에 의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쓰리 노……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게 1분 더 드리시지요.

○안규백 위원 쓰리 노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유승민 의원 등 여러 분들이 강조를 하다가 제대로 설명도 없이 급속도로 한중 관계가 유턴되면서 파탄 관계를 그 당시에 맞이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충분한 외교적 설명이 없어 가지고 당시에 정부에서 중국에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사드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북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그 당시에 성주 기지 주민들한테 이 문제로 그때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군사적 비밀 유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사적 비밀 유출입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민생 상생 차원에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국방부장관 김용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마치고 검찰 수사 중에 있어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돼서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때 한한령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중국한테 설명도 했고, 한한령을 풀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이해를 구하려고 폐쇄하고 봉쇄하고 시위하고 있던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군사적 기밀 유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이 부분은 장관님, 더 필요한 게 있으면요 안규백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더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안규백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상 답변하기가 제한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위사업청장님, 이 문제는요 현대와 한화의 갈등 구조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역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톤수 문제, 항적 거리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수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는 3000t을 제시했다면서요, 거기서 5000t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충분히 5000t으로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적 거리도 물론이고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원래 호주에서는 현재 우리의 이미 운용하고 아니면 설계된 것을 그대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남, 대구와 한번……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그래서 정부에서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청장님, 그 부분도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안규백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또 병력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임종득 위원 170mm하고 240mm가 지금 몇 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러시아에?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현재까지는 한 200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서 좀 차이가 나던데 200문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화성-11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 가지고 실제로 전투 배치가 됐잖아요. 그것은 한 100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용하는 기술전문가들도 같이 파견돼 가지고 운용을하게 되고 실전에서 사실은 새로 만든 화성-11을 시험해 보는 결과가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러한 어떤 실전에 대한 실전 경험과 함께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고도화된다면 우리에게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인원도 지금 1만 2000명, 1만 5000명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상자가 많이 생긴다, 전사자도 생겼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과거의 파병 경험들을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파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한 인원들의 실전 경험도 우리한테는 또 큰 위협이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러한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 러시아는 대가로 방공망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공미사일을 지원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원유도 약 한 100만 배럴 정도 지원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침략한 전쟁이다 이것은 명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NATO의 능력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푸틴이 선거할 때는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만에 종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파악을 한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물론 트럼프가 지명한 참모진들은 발언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초기 종전과 관련돼서 트럼프의 말을 신줏단지 모시듯이 야당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물론 트럼프 당선자께서 얘기한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초기 종전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대로 초기에 종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특사단이 한국에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임종득 위원 지금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한다, 한·러시아 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실전적으로 우리한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

하나는 러시아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까? 이것은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그것이 지원됐을 때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북한과 러시아의 행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카드가 있고 그 카드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략 국가인 러시아로 하여금 초기 종전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카드와 능력을 함께 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조금만 계시고요.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법률안을 우선 통과를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면 그때 추후에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어지간하면 제가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과 이 앞에 있는 민주당 우리 국방위원들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실제 우리 앞에 앉아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런 것 규탄은 하지 않고 실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투로 마치 우리가 규탄을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 없이 규탄을 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불과 오늘 9시 20분 여기 오기 전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모여서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70명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할 당시는 지금 부승찬 위원, 박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참가했었고 여기에 서명한 위원들은 7명입니다, 우리 국방위원 중에. 김민석·김병주·박범계·박선원·부승찬·안규백·추미애 위원님이 공동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장관한테도 정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매주 골프를 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자명예훼손죄에도 걸립니다.

잠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이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매주 골프를 치면서 국정을 등한시한다는 뉘앙스로 어떻게 보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습니다. 매주 골프를 안 쳤다면 이것은 완전히 명예훼손이고,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런 데 괜히 송사에 걸리지 말고 여기에 다시 정정하고 사과해 주시기 바라고, 제발 뭘 얘기할 때 장관께서도 팩트 좀 확인하고 하세요, 그냥 임의대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어제 내셨어요, 오늘 내셨어요?

○**김병주 위원** 오늘 9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20분에 하셨는데……

○**김병주 위원** 여당 간사에게도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아마 여당 위원님들이 이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주 치셨다 그랬는데 자주 치신다고 하는 표현을 아마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박선원 위원** 자주 아닙니다. 위원장님 표현 바꾸지 마세요.

○**김병주 위원** 매주 친다고 했어요, 매주.

- 박선원 위원** 거의 매주라고 그랬고, 위원장님이 왜 또 자주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 박선원 위원** 제가 5년 동안 청와대 근무했어요. 내가 토요일 일요일 거의 매일 근무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디펜스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주 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 김병주 위원** 매주, 매주.
- 위원장 성일종** 그하게, 종종 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매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장관님, 그 부분을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지요?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게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자주도 아닌데 왜 정정을 해요?
- 김병주 위원** 아니, 말로 정정해야지……
- 위원장 성일종** 이것 가지고 또 싸울 일들은 아니잖아요.
- 추미애 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이것 관련 말고……
- 김민석 위원** 제가 30초만……
-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아니아니, 추미애 위원님, 이것도 두 분 드리고 난 다음에 우선 법률안 통과시키고 제가 마지막에 할 때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추미애 위원** 법률안 통과 전에 장관이 아까……
- 위원장 성일종** 법률안과 관련되신 건가요?
- 추미애 위원**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함께……
-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그러면 그것도 법률안 통과시키고 나서 좀 더 토론할 때 현안과 관련돼서 하실 수 있을 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지난번에 산회 금방시켜 버리시더만. 안 돼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언제 산회를 금방 시켜요?
- 추미애 위원** 법률안에 협조를 할 테니까 먼저 좀……
-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 하면서 정말 야당 위원님들 다 배려하고, 다른 위원회처럼 안 하잖아요. 아시면서 그려세요.
- 추미애 위원** 아니, 하나를 얼른 확인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예?
- 추미애 위원** 한 가지를 얼른 확인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발언하시고 확인하시고 통과하고 더 하실 것 있으면 그 이후에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황희 위원님도 신청하셨지요?
- 황희 위원** 예.
- 위원장 성일종** 두 분 하시고 법률안 통과하고 난 다음에, 김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하고 선배님들이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결위 상황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석을 해야 돼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장관님, 중부지방에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혹시 군 부대 피해 상황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예의 주시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지난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 속에서 군 초급간부나 전 장병들의 기본 급식 문제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열심히 정부에 제기하고 예결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처우 개선 문제나 급식 인상에 대해서 증액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님께 면목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부사관들 몇 명하고 골프를 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3명인가 4명인가 제 기억에 한 서너명 될 겁니다.

○**허영 위원** 물론 대표성이 있고 그분들은 료또를 맞은 그런 게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잘 먹여야 국방력도 강해진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처우 개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격려와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기재부장관 불러 가지고 따끔하게 호통치는 것이 더 중요한 대통령의 자세이자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고 휴가기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벤트성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장병들과 군 간부들과 군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 상당히 심각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살상무기를 수출하고 파병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1명이건 부대 단위이건 책임감을 함께 나누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한 법을 낸 우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정부의 다양한 행정행위에 대한 훼방 행위다, 그런 무기수출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런 여당 의원의 질의에 총리가 ‘훼방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의 입법, 살상무기를 수출해서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우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통한 제어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권을 정부 행위에 대한 훼방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마치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도 또 관계자들도 훼방 행위를 하는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게 아니고 살상무기 수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영 위원** 장관님,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 국민들이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러시아에 우리……

○**허영 위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국적 국민들이……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허영 위원**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허영 위원** 또 러시아와 수교할 때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고려인들이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몇 분이시지요?

○**허영 위원** 5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교를 해 왔고.

우리가 수출할 때 남방항로를 이용하면 30~40일 걸립니다. 북방항로를 이용하면 10일 만에 유럽으로,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허영 위원**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안보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국익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국회의 입법권 행사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해야 되고 실전 경험 운운하면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의 이익을,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심각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장관님 저는 몇 가지 확인 간단하게……

보통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문제로 현안이 있거나 이럴 때 대통령이나 총리 앞에서 두 장관이 토론하거나 아규(argue)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재부……

○**황희 위원** 기재부에 어떻게 관철을 시켜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기재부장관하고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그냥 둘이?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닙니다.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하고 있고요 중간 간부들은 또 중간 간부들끼리 서로 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총리나 대통령과 같이 토론하고 그래야 정리가 되지 장관님하고 기재부장관하고 해 가지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화시키거나.

두 번째는 북러 포괄적 군사동맹으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하고 미국처럼?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벗어나서 북한하고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했을 때 미국과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어디 우크라이나……

○황희 위원 북한하고 우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을 때 둘이 싸울 때……

○국방부장관 김용현 우크라이나에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울 때?

○황희 위원 예.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황희 위원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건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우선 저희가 파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황희 위원 그런 경우에.

○국방부장관 김용현 가정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황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아니, 그 가정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각각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국가가 한반도를 벗어나서 전쟁을 치렀을 때 자동개입 요건이 되나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약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파병하는 데 북한의 이익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끼어드는데 우리 이익은…… ‘전쟁 끝나고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분을 참여하는 건가?’ 제가 심지어는 그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국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자꾸 위태위태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익이 좀 선명히, 북한은 자기 국익이 선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명하지 않아요. 자꾸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꼭 당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골프 이야기 하는데 장관님이 구구절절하게 대통령 그걸 했는데 대통령께서 골프 친 것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골프 쳤을 때 그 기간의 부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월 22일 날 부천 호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7명 사망하고 10명 넘게 크게 다쳤거든요. 이 뒤로는 거의 추모기간 비슷하게, 추모기간도 아니에요. 수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 국회의원 중의 1명이 골프 쳤으면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하물며…… 아마 부천호텔 화재 났던 그다음 날 정도에 일정 잡았을 것 같아요, 날짜를 보면. 대통령 일정 잡는 것 제가 대충 아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참모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것 취소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게 있는데, 물론 끝나고 다음날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지요. 좀 눈치껏 해야지, 그래서 골프 쳤다 가지고 누가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나 불행한 일이나 엄중한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 쳤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골프……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지요, 휴가기간에 쉴 때. 그 부

분에 대해서 참모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것 조심해야지요. 정치는 직접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쳐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황희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잘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 골프는 대통령께서 휴가기간 중인 8월 8일, 8월 9일 날 운동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법률안 통과를 먼저 하고요, 시간이 좀 저거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추미애 위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마칩니다. 한 꼭지 발언을 좀 정정을 받아야 돼서……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김민석 위원님도 짧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김병주 위원님, 많이 드렸거든요. 2분만 하십시오. 아셨지요? 추미애 위원님, 제가 3분 드릴게요. 그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김민석 위원님 한 30초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김민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강대식 위원님하고 법률안 통과하고 산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장관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이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치셨다라고 속기록에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를 여전히 하시지 않고, 아까 위원장께서 여쭤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정정하겠다’ 그것으로 그치실 겁니까, 다시 진지하게 사과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민석 위원 잠깐만요. 진지하게 하세요. 장난쳐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민석 위원 잠깐 있어 봐요. ‘사과 말씀 드릴게요’ 하고 땀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니요, 그……

○김민석 위원 그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쳤다고 이야기했으면 왜 그런 발언을……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석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왜 그런데 큰소리치세요?

○김민석 위원 진지하게 사과 말씀을 하시라고.

○국방부장관 김용현 왜 큰소리치세요?

○김민석 위원 성안된 문자로……

○국방부장관 김용현 조용히 얘기하셔도 얼마든지 들리니까 살살 얘기하세요.

○김민석 위원 성안된 문자로 사과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 전제는 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거의 매주 운동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물론 그 표현이 너무 과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석 위원** 장관.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김민석 위원** 물을게요. 안 되겠네요.

장관은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거 확인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국방부장관 김용현** 확인을 한 게 아니고요.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김민석 위원** 확인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니, 물론……

○**김민석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민석 위원** 확인 안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민석 위원** 모 위원이 아니고, 속기록 지금 안 되겠네요. 정회하고 속기록 가져와야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가져오십시오.

○**김민석 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매주 골프를 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누가 이야기한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톤으로 이야기했어요. 모 위원의 얘기를 다 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옳은가 그른가가 판단 안 돼요? 장관은 누가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일이건 노무현 대통령 골프의 일이건 그것을 전언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표현이 과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위원** 그 표현이 과했다면이 아니라……

○**국방부장관 김용현** 하지만……

○**김민석 위원** 잠깐만. 표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주 골프를 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찌나 할 일이 없었는지 매주 골프를 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표현의 부적절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묻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혀위로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는 사자 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국회에 지금 그 후손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해서 본인의 무엇이 잘못됐나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장난쳐요, 지

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자주 치셨다는 것을……

○**김민석 위원** 자!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본 총리 얘기 듣는 줄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자주 골프를 치셨다는 것을……

○**김민석 위원**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니, 그러니까요……

○**김민석 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기억해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김민석 위원** 누가 다 알지요? 누가 다 알아요?

○**박선원 위원** 뭔 혀소리하고 있어요?

○**추미애 위원** 매주라고 했잖아요.

○**김민석 위원** 장관, 장난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속기록 갖다 줄 테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게 하세요.

○**박선원 위원** 보세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장난치고 모욕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박선원 위원님……

○**국방부장관 김용현** 자주 하셨다는 표현을……

○**김민석 위원** 김용현 장관, 똑바로 사과해요, 사과하라니까! 똑바로 해 봐요, 다시.

○**국방부장관 김용현** 했잖아요, 표현이 과했다면 유감이다라고.

○**김민석 위원** 제가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러나 그것은 자주 운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거의 매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주 치셨다는 것은 아니고.

○**김민석 위원** 김용현 장관, 김용현 장관은 자주 훈련하는 것과 매주 훈련하는 것을 구별 못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민석 위원** 거의 매주와 자주가 같습니까?

○**박선원 위원** 자주 한 적도 없어요!

○**김민석 위원** 김용현 장관, 국어 그 정도로 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래서 그 표현이……

○**김민석 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사자명예훼손의 뜻이에요. 사과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김민석 위원** 표현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 사과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자주의 근거를 대요, 그러면! 무슨 자주 했다고 또 재탕 삼탕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근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근거를 찾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장관 김용현**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박선원 위원** 지금 누가 알아요, 임종득 위원도 다 같이 근무했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임종득 위원** 뭔 말을 하고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강대식 위원** 고함 좀 치지 마요. 귀머거리가 있나 뭐 그렇게 고함을 자꾸 지르노.

○**박선원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강대식 위원** 아니, 점잖하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박선원 위원** 점잖게 안 하는데 뭔 말씀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그만 좀 하시지요. 아니, 장관님.....

○**박선원 위원** 뭘 그만해요? 누구 마음대로 자주 했다고.....

○**박범계 위원** 안 되겠어.

○**김민석 위원** 제가 끝낼게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민석 위원님, 마무리.....

○**김민석 위원** 됐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김용현 장관이 매번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알지만 혹시 이번에는..... 자주 이상한 소리 하고 어쩌다 한번 사과하는 것 봤는데 역시 매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장관인 것을 확인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세요.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3분 하시고요 그리고 법안 통과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저도.....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김병주 위원** 저도 추가질의.....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협조 좀 해 주세요. 간사도 하셨잖아요.

○**김병주 위원** 아니, 2분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아까 다 드렸잖아요. 여러 번 드렸잖아요.

○**김병주 위원** 아니, 조금 전에 2분 준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더 드렸어요, 아까 그것 가지고 안 돼서.

○**김민석 위원** 김용현 장관, 그렇게 뻔뻔한 표정 하는 게 국방장관 다운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까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안보휴가라고 둘러댄 것. 또 하나의 문제는 8월 8일 휴가 중 구룡대 골프장은 이용할 수가 없는 날 어거지로

문 열고 한 겁니다. 그날은 두 달에 한 번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일이었던 말이에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연산군입니까? 내 놀고 싶은 대로 내 휴가 일정 맞춰서 ‘문 열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그 부적절성을 얘기한 건데 자꾸 엉뚱하게 족구 했다, 누구 부사관하고 했다, 엉뚱한 얘기 자꾸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박선원 위원께서 현금성 격려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 답변이 ‘문재인 정부 때 없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팩트 이겁니다. 장관에게는 현금성 격려금 40억이 있고요. 육군총장 등에게는 70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금 목적의 지휘활동비가 있는 겁니다. 다만 당시에 이것 그냥 현금으로 막 지급하니까 문제가 돼서 현금봉투는 주지 마라 대신 계좌에 입금해서 실시하라 이렇게 개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방문 시에 군 통치 차원에서 격려금 목적의 지휘활동비는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문제인데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한 지난 정부의 개선 조치를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있는 것도 없앴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지난 정부 계좌 입금해서 제대로 좀 실효적으로 집행하라, 투명하게 집행하라 한 조치도 지금 현재 안 한다 그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니, 박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장관이 현금으로 격려를 하는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그게 언제 없어졌느냐, 추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때 없어진 게 맞지 않습니까.

○**추미애 위원** 없앤 게 아니지요. 통장에 넣어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지요. 통장……

○**추미애 위원** 착복하지 말고 집행을 똑바로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러니까 통장으로 입금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잘한 건데……

○**박선원 위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현금성으로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현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해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좀……

○**임종득 위원** 입 좀 다물고 있읍시다. 너무하시네.

○**박선원 위원** 나가세요, 그러면.

○**임종득 위원** 나가라니? 지금 내가 있어야 정족수가 돼요. 지금 정족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미애 위원** 그거나 지금 장관의 말버릇이, 매주 골프를 쳤다를 문제를 삼으니까 자주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모두 합쳐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리고 한 가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8일 날 구룡대 휴장일인데 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날 만약에 대통령님이 가시면 운동하는 인원들에게 많은 지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날 휴장이고 해서 그러면 인원들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만 운동하면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신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추미애 위원** 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성일종** 아니, 잠깐만요. 협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 중의 한 분은 의장님하고 일정도 있으세요. 끝나고 나서……

○**박범계 위원** 아니, 고함 안 칠 테니까……

○**위원장 성일종** 통과하고 그러고 제가 기회 드릴게요. 아셨지요?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66조 3항과 7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조국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14항까지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강선영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동의안 및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부승찬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그리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통과는 됐고요. 박범계 위원님 짧게 하시고 또 김병주 위원님 하시고 강대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님, 아까 김민석 위원님 사과 요구에 사과인지 또 다시 덧붙이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고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사항도 있고.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아까 덧붙여서 ‘골프를 많이 치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내용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장관께서 잘못된 게 윤석열 대통령은 족구니 농구니 골프니 부사관들과 골프니 하면서 애민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비서관 했지만 청남대도 제가 같이 따라가고 했습니다. 골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잘 치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매주 쳤다라는 그 표현은 매우 적대적이에요. 지금 모시는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은데 아주 절절한 애민사를 지금 읊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에 기초해서 사실도 아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거두절미하고 조건 붙이지 말고 사과를 하세요. 나는 그게 장관의 기본적인 품성과 관련된 평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아까 태릉골프장에서 경찰 광수대가 민간인들 신상 자료 갖고 갔을 때 경호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경호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한되는데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방부 협조도 없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재판과 관련해서 1월 9일 날 1차 선고가 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글쎄요, 제가……

○김병주 위원 원래 통상 군에서는 구형이 있은 이후에 한 3주 후에 하는데, 그래서 재판부를 그 안에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 안에 재판관들이 바뀌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솔직히 제가 보고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잘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사건은 장관님한테 있으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ADD에서 지난번에 출장 중에 동료 직원을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래서 경징계를 내린 사건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때 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 아마 사실과 좀 다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김병주 위원 ADD 소장님 와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예.

○김병주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것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ADD 소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피해자를 거의 신문 수준으로 한 것 같아요. 너 이것 정신과 약 먹은 것 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항의를 했고 그랬더니 피해자를 격리를 시켰어요. 실제 징계위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딱 1분만 주세요. 이것은 확인이 필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제가 잠깐 회의를 브레이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끼어 들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김병주 위원님. 이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상과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원장 성일종 소장님, 대면보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총론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인권과 관련되고.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호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팩트만 확인할게요, 팩트만.

1분만 주세요.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팩트가 하도 너무나 어이없어서 팩트 체크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인원을 격리시켰는데 그 인원이 옆 창문으로 뛰어내려 갖고 피해자가 척추 골반 손목 발목 이런 중상을 입었어요. 이것은 사실인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회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군에서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면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이건완 소장님, 이 부분을 김병주 위원님도 그렇고 방금 안규백 위원님도 관심을 표명하시니까 원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마무리하시고 산회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러·우 확진 방지 및 전쟁 초기 종식과 대한민국의 평화·안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문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합니다.

장관님, 혹시 요새 케이팝 스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옛날에 윤수일 노래, 그것 요새 세계적으로 히트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들어 봤습니다.

○강대식 위원 들어 봤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강대식 위원 케이팝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폭발력과 또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연예인들이 군 복무 중에 있지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방탄소년단 멤버 한 4명 정도가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제가 들어 봤는데 이들이 국위선양과 국방 또는 군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좀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장관께서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 강대식 위원 못 들었어요?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 강대식 위원 지구촌 전체에다가 우리 군을 이렇게 알리려고, 군복이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은 만약 방탄소년단, 군 복무하고 있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적극적으로 뒤에서 많은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쪽에서 국방부 측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입대 예정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뛰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 강대식 위원 26일 날 국토위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께서 이제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지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이, 장관님이 이제는 적극 나서 줄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 출석 위원(16인)

강대식 강선영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유용원  
임종득 조국 추미애 한기호 허영 황희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군수관리관 이갑수  
기획관리관 김경욱  
법무관리관 홍창식  
지능정보화정책관 천승현

국제정책관 이승범  
인사기획관 오영대  
동원기획관 김신숙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첨단전력기획관 류효상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 김종선  
군사보좌관 김철진  
**병무청**  
청장 김종철  
기획조정관 김용무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입영동원국장 문경식  
사회복무국장 정홍식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조현기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경호  
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정책조정담당관 도윤희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4.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11월 15일 회부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5.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11월 18일 회부됨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8.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0)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11월 20일 회부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11월 22일 회부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이상 2건 11월 25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009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4. 11. 26.

**○보고서 제출****방위비분담금 관련 보고자료**

(2024. 11. 15. 국방부장관 제출)

**2024-2차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

(2024. 11. 15. 방위사업청장 제출)

**헌법소원심판회부 통지**

(2024. 11. 26. 헌법재판소장 제출)